

중부권

■나주초 '이화축제'

“방과후 학교에서 쌓은 실력
부모님 앞에 맘껏 뽐냈어요”

나주초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맘껏 뽐내는 '이화축제'가 최근 개최됐다.

나주초 '이화관'에서 열린 이번 '2010 이화축제'는 학생들이 1년간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시간에 익혀온 재능을 맘껏 뽐내는 행사로 1350여명의 학생들과 5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했다.

축제에서는 사물놀이, 민요, 합창 등 총 27개 종목의 공연이 펼쳐졌고 학생들의 재능이 전문가 수준 못지 않는 실력을 갖췄



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악부의 '드보르작 New World' 공연은 참석했던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철 교장은 "학생들의 창조적 표현과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완도 고금초 '도시 체험학습'

“영화관람·골프에 탐색까지
섬에서 못한 것 맘껏 했어요”

섬마을 학교인 완도 고금초등학교가 실시한 도시 체험학습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고금초등학교(교장 박종태)에 따르면 최근 목포대 '도시 아동비전드림 청년사업단' 초청으로 4·6학년 학생과 교사 등 108명이 1박2일 동안 목포를 방문, 다양한 체험학습을 했다.

학생들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야간 축구경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 파크골프, 볼링, 염색체험, 영화관람, 서점에서 책 사기 등 섬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현장학습을 했다. 체험학습



에 참가한 4학년생 김도균(10)은 "국제 규모의 축구장에서 경기를 할때는 마치 내가 선수가 된 기분이었다"며 "파크골프와 볼링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재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금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고사모' 김권기 회장은 도서 구입비 110만원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문학관·체육관 등 수익으로 운영비도 충당 못해

장흥 공공시설물 관리 '고민'

郡, 민간위탁·전담부서 통합 등 대책 부심

일선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골몰하고 있어 민간위탁과 함께 지자체간 통합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최근 이명훈 군수 특별지시로 21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시설물이 활용도는 낮음에 비해 인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 기행특구로 지정돼 지난 2008년에 61억원을 들여 대덕읍 연리지 천관산 자락에 건립한 '천관문화관'은 개관 2년이 지났는데도 활용하는 문학인들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천관산 문화테마파크' 2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8월24일 11면

살리지 못한 채 문학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장흥 위씨 집성촌이 고려말 고을지인 관산을 방문마을에 30억원 들여 지난 2005년에 건립 운영하고 있는 '방촌 유물전시관' 역시 연간 방문객이 고작 42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체육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흥 실내체육관은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1350만원인데 반해 연간 사용인원은 겨우 1만9500여명에 불과하다. 장흥 공설운동장은 2700만원의 유지비에 4700여명, 장흥점 축구전용

구장 또한 3000여명 밖에 이용하지 않아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같이 공공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의 성과위주 행정도 문제지만 대부분 국비(교부세 등)로 이뤄지는 점에 비춰 중앙정부의 '퍼주기 식' 지원방식 제도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공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 민간위탁을 실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전담부서를 통해 부서별로 분산된 인력 및 예산을 통합 관리해 공공시설물 운영 패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강진서 사회인 야구대회 13일~14일 16개팀 경쟁

강진에서 '제2회 청사재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오는 13일부터 2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에서 활동중인 사회인 야구 16개팀 4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들 16개 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15경기를 치르며 우승·준우승에는 청사재로피와 부상이 주어지고 감독상·최우수선수상·훈장상·최다 안타상·다승상에는 청사재로피가 수여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농어촌공 '농지매입사업' 인기
올 24명 신청... 3억6천만원 이자 부담 줄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따르면 신청한 농민은 24명에 총 28억원에 달한다는 것. 사업 신청으로 농민들이 아낀 이자 비용도 3억6천만원에 이른다.

농지매입사업은 70세 이하 농민이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율의 연체이자(13%~16%) 대신 낮은 입찰료(매도대금의 1% 이내)만 납부하게 돼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

다. 공사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를 매입한후 매각대금의 1%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고 7년에서 최장 10년간 임대해 준다. 또한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보장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가격이나 연 3% 이자를 계산한 금액 중 농업인이 유리한 금액으로 정한다. 나병선 지사장은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5월부터 상시 신청체제로 변경돼 1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참모객의 계절이 왔어요 부드러운 갯벌일자 때문에 '참뿔'로 불리는 강진만 갯벌에서 아낙들이 차거운 비드비함을 맞아가며 분주한 손놀림으로 참모객을 캐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국향 그윽한 청사로 놀러오세요”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국화축제'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정부광주합동청사'가 지난 8일 '제2회 국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달 30일까지 열리는 '국화축제'는 본래 600여개와 화분 1000여개 등 총 1600여개 국화가 청사 내·외에 전시, 정부광주합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그윽한 국화향을 선물하고 있다.

정부합동청사측은 지역 주민들이 총 100여종의 각양각색의 국화향 꽃을 맡을 수 있도록 토요일과 공휴일도 시설물을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된 국화는 일반인들의 출품작이 아닌 청사 직원들이 1년간 손수 키워낸 것으로 자연의 생태환



경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광주보훈청·광주노동청·광주조달청 등 13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는 이번 '국화축제'를 통해 민원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심포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환기자 srchoi@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Auction Services. Includes sections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Agent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Agents), '금산공인중개사' (Ginsan Real Estate Agents), and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Features tables of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scriptions.